

장성 청년들 각종 공모사업 '두각'

옐로! 팀·뚝딱청년·청년 농업인 5건 선정 사업비 1억원 넘게 확보 농업·관광 등 분야 지역사회 활력

장성지역 청년들이 각종 공모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들어 현재까지 장성 청년들이 선정된 공모사업은 총 5개 분야로, 확보한 사업비 규모는 1억9000여 만원이다.

지난달에는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에 '장성 옐로! 팀'이 선정됐다.

'장성 옐로! 팀'은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팀원 4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한 '장성 옐로! 팀'은 지역 청년이 주도하는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6월 중 청년기획단을 구성해 오는 10월께 '마을 축제 청년 옐로!'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성 편백나무를 활용한 가구 제작, 목공예, 인테리 시공 등에 뛰어난 청년 단체도 있다. 지역 청년 4명이 모인 '뚝딱청년'은 지난 4월 (재)전남 중소기업진흥원 '청년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앞으로 커뮤니티 활동과 작품 전시, 홍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성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의 활약도



유두석 장성군수가 지역청년 4명으로 구성된 뚝딱청년팀을 초청해 상담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두드러진다. 올해 전남도 청년4-H 과제 경진대회에서 김재원(진원면, 복숭아 재배)씨가 대상, 이남현(황룡면, 벼·보리·콩 재배)씨가 장려상을 각각 수상해 총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공모에 밀기트(간편 요리세트) 사업을 제안한 김주영(서삼면)씨와 새싹삼을 재배하는 김선주(동화면)씨가 선정돼 각각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주민들과 함께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관광사업체를 육성·홍보하는 일에 도전한 청년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인 '관광두레피디' 사업에 피디로 선정된 정지은(북하면)씨는 앞으로 3년간 주민사업체 육성을 위한 주민공동체 구성과 운영, 관광사업 모델 제안을 지원하게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농업,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공모 선정으로 장성 청년들의 활약상이 더욱 빛나고 있다"며 "군에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는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해남 민박·펜션 운영 34명 '강진 푸소 체험'

강진군의 대표 관광프로그램인 '강진 푸소(FU-SO)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해남군 생활관광아카데미 교육생 34명이 강진군을 방문해 푸소 체험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해남군이 생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민박과 펜션을 운영하는 교육생들이 직접 푸소 농가에 머물며 관광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강진군 푸소 농가의 운영방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의 한 참가자는 "민박·펜션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생활 관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이 낯설었는데, 푸소 농가에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영빈 강진군 관광과장은 "하반기에는 통합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 농가의 스토리텔링 사업을 추진해 콘텐츠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군과 농가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 푸소체험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총 893명이 방문해 1억 8000여만원의 농가소득을 창출했으며, 하반기에는 6000여명이 예약하는 등 소규모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군보건소 임산부 건강교실 큰 호응

담양군의 지역 주민을 위한 임산부 건강교실이 호응을 얻고 있다.

담양군은 최근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안전한 분만 정보 제공과 모유수유 인식 전환을 위해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진> 보건소에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임산부 건강교실에서는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를 초빙해 올바른 수유 방법과 유방 관리, 산전 마사지 등에 대한 강연과 실습이 진행됐다.

또 임산부 걷기 체험과 각종 출산용품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순복 담양군보건소장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소중한 새 생명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 전 검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중국 천진방송, 화순 능주초교서 정율성 다큐멘터리 제작

공적 뛰어난 외국 당원 이야기

구충곤 군수 유적지 등 직접 소개

중국 천진방송이 능주초교 출신 중국 3대 음악가인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다큐멘터를 화순에서 제작하고 있다고 14일 화순군이 밝혔다.

천진방송의 공산당 성립 100주년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 '세기를 보내며(走送世紀)'는 중국 국가방송총국으로부터 중점 항목으로 지정돼 제작된다.

이번 작품은 중국 공산당 역사상 뛰어난 공적을 세운 외국 국적 당원 이야기로 다뤄진다.

정율성 선생(1914~1976)은 화순 능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능주는 정율성 선생이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작곡하는 등 3대 음악가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친 곳이다.

당시 능주에는 국악이나 악기를 교육하던 '신청(현 국악원)'이 있었고, 판소리 명장인 김채만, 공창식, 공대일 등 걸출한 국악인들이 많았다.

이런 풍부한 음악적 환경은 정율성 선생이 위대한 음악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게 화순군의 설명이다.

화순군은 '정율성 선생 유적지 관광명소화' 사



구충곤 화순군수가 능주초교에서 진행된 천진방송국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화순과 정율성 선생의 인연, 유적지와 기념관 건립 등을 소개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업을 통해 재학 당시 교실 풍경을 꾸민 '정율성 교실'을 조성했으며 능주초 건물 옆면에 정율성 벽화를, 후면에 선생의 흉상도 세웠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능주초교에서 진행된 천진방송국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화순과 정율성 선생의 인연, 유적지와 기념관 건립 등을 소개했다.

구 군수는 "정율성 선생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중국과의 문화교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주자묘, 정율성 선생 유적지 등과 연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함평군립미술관 동아시아 판화전 '새김과...'

8월 15일까지 4개국 작품 전시

함평군이 15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함평군립미술관에서 동아시아 판화전 '새김과 되새김'을 개최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4개국의 판화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특별전은 함평군립미술관이 2021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광주 은암미술관과 함께 기획했다.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유휴 전시공간의 가동률을 높이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다.

국내 작가로는 김익모, 노정숙 등 13명이 참가하며, 중국 작가 13명, 일본 작가 3명, 베트남 작가 2명 등 모두 31명의 작가가 참여해 61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다양한 판화 작품을 살펴보고 판화 장르의 소외 현상과 판화가 처한 현실을 진단한다.

전시는 제1·2전시실에서 매일(월요일 정기휴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함평군립미술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와 위축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며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동아시아 미술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은학 기자 hwang@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물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리고 앉아 지나온 밤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 |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